

# “기다림은 옹이같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⑥ 감옥에서 띄운 어머니전 상서

신영복 교수(성공회신학대)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햇빛출판사, 1988)은 옥중서간집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다. 신교수는 1968년 7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투옥,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와 전주교도소에서 20년 20일을 복역하고 88년 8월 가석방되었다. 신교수가 감옥에서 나오기 직전 편지의 일부가 《평화신문》에 연재돼 관심을 모았다. 출소 후 편지들은 단행본으로 묶였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대열에 들어섰다. 25만부 이상 팔린 이 책은 출간 10년째를 맞는 올해도 꾸준히 독자의 손길이 닿고 있는 스테디셀러 중의 스테디셀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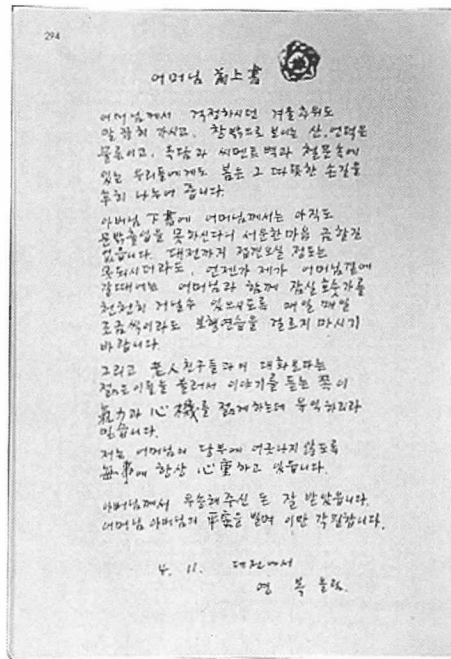
## 갈수록 빛나는 ‘감옥에서의 사색’

이 책은 각종 교양도서 목록에 빠짐없이 들어 있다. 지난해 《출판저널》이 200호 특집으로 마련한 앙케트 ‘우리시대의 교양서’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고, 올해 서울시내 인문사회과학서점들이 함께 모여 만든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목록에도 ‘일반교양’ 분야의 주교재로 선정되었다.

그가 감옥에서 행한 사색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머리말을 대신한 ‘부치는 글’에 나와 있다. 그의 글이 가장 고통스런 환경 속에서 나온 평화의 메시지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놀라운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세대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일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는 6백여명의 학생들이 강연장을 메웠다. 신교수는 20년의 수형생활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권할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에 후회는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까지 스무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당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85년 8월 28일 계수씨에게 보내는 편지는 옥중서신을 옥중서간문학의 차원으로 끌어



감옥에서의 사색을 담은 서간집은 고통의 환경 속에서 나온 평화의 메시지로 읽힌다.

올리고 있다.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여름 징역살이’에 대한 통찰을 통해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겨워지는 부당한 증오심의 해악을 일깨운다. 또한 병상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고, 생각을 골똘히 갖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의 자리 하나 굳건히 지키게 해주는 옹이같은 단단한 마음입니다”라고 위무한다.

활자로 옮겨진 사색의 결실도 감동적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박아쓴 편지 원본은 더욱 감동적이다. 우리는 영인본 《엽서》(너른마당, 1993)를 통해 비찬 감동을 느낄 수 있다. 230여편의 편지를 수록한 이 책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들어 있지 않은 편지와 글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썼던 사색노트는 귀중한 자료다. 하루 두장씩 지급되던 휴지를 이용한 노트에서 우리는 신교수의 20대 시절 사색의 편린을 엿보게 된다.

## 어머니,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하여

비록 편지 한 통에 불과하지만, 신교수의 ‘사색’보다 더 널리 읽힌 옥중서신이 있다. 소설 《상록수》와 시 《그날이 오면》을 쓴 심

훈의 ‘어머니전 상서’가 그것.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이 글의 독자는 얼마나 될까?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저를 위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선에서는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몇 천이요 또 몇 만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땅의 이슬을 받고 자라나신 공로 많고 소중한 따님 중에 한 분이시고, 저는 어머니보다도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치려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사나이입니다.”

이 편지는 경성제일고보 재학시절 3·1운동에 가담, 5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을 때 쓴 것이다. 이 글은 심훈이 3·1 운동 후 중국 상해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그의 아내에게 쓴 편지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서한집》(시인사, 1983)에도 실려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심훈의 어머니에 대한 당부는 반세기 가 지나서 더 크신 어머니에게 헌신적인 아들·딸들에 의해 재현된다. 《간힌 자유인 열린 수인》(공동체, 1986)은 80년대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의 옥중서간집. ‘삼민투’ ‘깃발’ 같은 조직사건과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등의 각종 시위로 구속된 대학생들이 부모·형제·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모았다. 김민석·

오수진·정태근·허인희씨 등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총학생회장들의 이름이 보이는데, 김민석씨는 국회의원이 되어 한보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의 용도를 따져 나눌 때 서간문은 실용문으로 분류한다. 옥중서간집 역시 뚜렷한 실용적 목적을 갖고 출간되는 경우가 많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를 ‘구출’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정식출판이 아닌 자비출판의 형식을 띠기도 한다. ‘남민전’ 사건 관련자 박석률씨의 옥중서간집이 그 대표적인 예다. 87년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옥중에서 오고 간 편지》에는 출판사 이름이 없다. 삼형제 가운데 두사람을 감옥에 두고 있던 박석조씨가 형과 아우(박석삼)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는 뜻으로 엮었다. 석률씨와 석삼씨가 감옥과 감옥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책을 만들었다. 박석률씨의 편지는 출옥 후 그가 쓴 시와 함께 한권의 책으로 묶인다(《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폴빛, 1989).

## 백척간두에 서서

앞으로 옥중서간집을 펴낼 지도 모를 전직 대통령은 그의 재임 시절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한명도 없다고 말할 바 있다. 하지만, 90년대에도 여전히 옥중서간집은 출간되고 있다. 《백척간두에 서서》(사회평론,

# 집짓기의 즐거움

새 집을 지으실 계획이러구요?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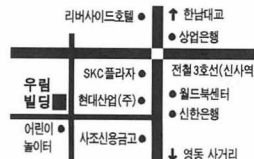
## 사업내용

집필: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문: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 기جه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기/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  
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  
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옥중서간집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다. 그가 감옥에서  
행한 사색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이유는 무얼까. 그의  
글이 가장 고통스런 환경  
속에서 나온 평화의 메시지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1992)와 《깊은 물에 큰 배 뜬다》(진원, 1996)는 '구미유학생 간첩사건'으로 20년형을 언도받고 10년 넘게 복역중인 두 젊은이의 내밀한 고백이다.

여자는 우연한 기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교환은 사랑의 싹을 틔우고 기약 없는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황대권씨는 약혼녀 이해경씨에게 쓴 글에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사람답지 않은 평상심을 보여준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의 두 근원은 사회과학과 명상입니다. 세계 있어 이것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천과 삶으로서의 과학과 명상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둘의 일치와 통일을 추구해 왔으며 또 그렇게 될 때만이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깊은 물에 큰 배 뜬다》는 최연소 장기수감용주씨의 옥중서간집. 여러 사람에 보낸 편지를 모았지만, 어머니에게 올린 글월들이 가장 절실하다.

“지금 조용히 ‘어머니’ 하고 불러 봅니다. 입안에 가득 여운을 남기고 가슴이 벅차게 메아리칩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뵈은 지 어느덧 3개월 반, 그러니까 백일 조금 넘어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더욱 깊어진 주름살과 하나 둘 늘어만 가는 흰머리, 피로하게 서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왈카 울음이 치솟아 오르려 합니다.”

이밖에 90년대 나온 옥중서간집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인노련’ 사건으로 복역했을 때 쓴 편지를 모은 윤철호씨의 《나는 겨울잠을 자러들어온 곰이로소이다》(일빛, 1991)는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처리한 삽화가 이색적이고, 문익환 목사의 《목매는 강산 가슴에 수놓으며》(사계절, 1994)는 문목사의 갑작스런 타계로 말미암아 유고집이 되었다.

옥중서간은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일컬음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았어도 이 범주에 드는 경우가 있다. 오수강씨의 《창살가의 햇빛》(햇빛출판사, 1990)에 실린 편지는 감옥 밖에서 씌어진 것이다. 오수강씨는 ‘통혁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아버지 오병철씨에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편지를 썼다. 여기에는 무기수 아빠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다. 또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밝게 자라는 한 소녀의 성장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옵니다”

감옥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송기원 시인은 불효의 변을 시로 승화시켰다.

“어머니./긴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려 하고 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트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일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죽는 새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슬에 젖은 발자욱 소리가 지금 산야를 울립니다// 어머니./이름 없는 산야의 이름 없는 무덤들 사이에서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시들은 잠초들 무성한 무덤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트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새벽이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그토록 긴 밤을 떠돌던 많은 녀들과 함께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편지〉전문)”

— 최성일 기자